

한국 대학의 국제화 실태 및 향후 과제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본지 편집위원

1. 대학 국제화의 의미

대학 국제화의 의미는 대학 내부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 세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국내 대학 내부로 유입하는 측면과 한국 학생을 해외로 보내서 교육시키는 측면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을 국내 대학 내부로 유입하는 측면에서는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으로 초청하여 국내 대학에서 한 학기 내지 일 년간 교육시키거나 더 짧은 기간,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에 4주 내지 6주의 기간 동안 교육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과 강의를 함께 듣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

게 됨으로써 한국 학생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사고를 접할 수 있게 하고, 한국 학생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다시 모국의 대학으로 돌아간 후 국내 대학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학생을 국내 대학 내부로 유입하는 또 다른 측면은 학부과정이나 석박사과정에 학위취득 과정 유학생으로, 그리고 어학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을 초청하여 연계 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다양성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하여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재정적인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해외로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은 주로 교류협정관계에 있는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으로 파견하여 한 학기 내지 일 년간 교육을 받거나 단기적으로 여름학기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단지 교육내용적 측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와 가치, 사고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보다 개방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전문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단지 캠퍼스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여행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접하게 됨으로써 국가 자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국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 있는 기업 또는 자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우수한 해외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는 국제적 통합, 이해관계의 공유, 지정학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고 미국 예일대학교의 리처드 레빈(Richard Levin) 총장은 2006년 포터 컨퍼런스(Poder Conference)에서 역설했다.

2. 대학 국제화를 위한 노력

대학 국제화를 위한 노력 역시 대학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 정책적인 노력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은 교환학생을 유치하고 파견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에 출판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63개 대학에서 총 4,708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 교류협정 체결 대학 수

지역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합계
대학 수	2,705	935	73	54	804	137	4,708

주 | 63개 조사 대상 대학 기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2013.

또한 멘토-멘티 등의 상담 프로그램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63개 대학 중 44개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환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전용 강좌 수가 대폭 증가한 것도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의 개별적인 노력에 더하여, 대학 국제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도 강화되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대학국제교육협의회(KAFSA, Korean Association for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 협의회에

는 90여 개의 국내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협의회 정기세미나를 통해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일본, 대만, 홍콩의 관련 협의회를 초청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할 뿐 아니라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중남미 주요 국가의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심층적으로 이들 국가의 국제화 전략을 학습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또한 미주 국제교육협의회인 NAFSA, 유럽 국제교육협의회인 EAIE, 아태지역 국제교육협의회인 APAIE의 연례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 한국 대학들이 연합하여 한국관을 구성하고 한국의 밤 행사를 주최하는 일을 주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개별 대학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대학 전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국가 정책적인 노력은 지난 2005년에 입안된 Study Korea Project가 그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여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인구는 187,683명인 데 반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인구는 16,832명으로 유입과 유출 간에 막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인구를 10만 명으로 늘리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인구가 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89,537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그 숫자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배타적 문화 등으로 인해 일

부 유학생들이 학업 및 생활에 있어 부적응을 보이고 반한감정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013년 보다 공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시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 명 유치하여 외국인 유학생 수의 비율을 5.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사실 외국인 유학생을 자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도 모두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자국으로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 캐나다의 경우 2022년까지 45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민을 통해 정착시킴으로써 자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체류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인재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에 수립한, 2020년까지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에 세부적으로 취직 및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중국도 2011년 외국인 유학생이 29만 3천여 명인데 2020년까지 5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학 인구가 1980년 110만 명에서 2009년에는 37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0년에는 450만 명까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유학생을 양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에 더해 유학생의 질을 관리하는 측면도 정책적으

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2012년부터 시행된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가 대표적이다. 본 제도의 추진 목적은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 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지한(知韓) 또는 친한(親韓) 인재를 육성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유학생의 질 관리 측면을 강조하면서 유학생 유치 규모가 정체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국가별로는 중국, 과정별로는 학부과정,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에 유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이 2011년 이후 조금씩 완화되는 결과도 가져왔다.

표2 | 연도별 유학생 편중현상 완화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인 유학생	59,317명 (66.2%)	55,427명 (63.8%)	50,343명 (58.6%)
학부 과정생	42,127명 (47.0%)	38,389명 (44.2%)	33,680명 (39.2%)
인문사회 계열	44,019명 (49.2%)	41,591명 (47.9%)	38,361명 (44.6%)

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2014.3.

또한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대학 제외)이 2012년 11.8%에서 2013년 21.8%, 다시 2014년에는 28.1%로 증가하게 되었고, 외국인 학생의 중도 탈락율(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대학 제외)도 2012년 4.9%에서, 2013년 4.2%, 2014년 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한국 대학의 국제화 실태

대학과 정부의 대학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4년제 대학 학부과정의 경우 해외로 파견하는 교환학생의 수는 2011년 31,670명에서 2012년 32,601명, 2013년에는 36,787명으로 증가하였고, 국내 대학으로 들어 온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의 수도 2011년 16,704명, 2012년 21,901명, 2013년 22,178명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오는 해외 학생에 비해 여전히 해외로 나가는 국내 학생의 비율이 연도별로 각각 1.9배, 1.5배, 1.7배로 많아서 심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2012년 5,151명에서 2013년 5,367명, 2014년에도 5,370명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고, 전체 전임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연도별로 각각 7.4%, 7.5%, 7.3%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대학을 제외한 외국인 학생 수도 2012년 60,921명에서 2013년 58,449명, 2014년 57,608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우수한 해외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취업률은 2013년 기준으로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QS 세계대학 평가에 의하면, 세계 대학 순위에서 300위 이내에 속한 국내 대학의 수는 2011년 7개 대학에서, 2012년 8개 대학, 2013년에도 8개 대학으로 그 수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 비율의 측면에서 300위 이내에 속한 국내 대학의 수는 2011년 3개 대학, 2012년 4개 대학, 2013년 3개

대학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외국인 학생 비율의 측면에서도 300위 이내에 속한 대학의 수는 2011년 7개 대학에서 오히려 2012년 4개 대학, 2013년 4개 대학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외국인 교수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에서 100위 이내로 더 좁혀보면 한국 대학은 한 곳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화에 대해 일찍이 매진해온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교수 비율에 있어서 100위 이내에 2013년에 각각 5개교와 2개교가 이름을 올렸고, 외국인 학생 비율에 있어서도 각각 4개교와 2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4. 대학 국제화의 향후 과제

1) 대학본부의 국제화에서 학과의 국제화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수준이 최근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종합적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국제화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입시 및 선발, 유치활동, 사증발급 및 출입국 관리, 오리엔테이션, 보험가입, 건강검진, 수강지도 / 학사지도 / 졸업사정, 기숙사 배정, 심리상담, 생활상담, 학습법 / 교수법 지도, 문화 체험활동, 한국학 교과목 개설, 사고발생 시 대처, 방문객 의견,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지도, 동문회 관리 등 입학에서 학내 정착, 교육, 졸업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화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필자가 2014년도에 국제화 관련 다양한

업무의 실제 집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65%~78%로 나타나서 여전히 국제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개선 내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시 및 선발, 유치활동, 사증발급 및 출입국 관리, 오리엔테이션, 보험가입과 같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심리상담, 학습법 지도와 같이 외국인 학생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을 해결해줌으로써 이들이 소기의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나아가 인턴십이나 취업 지도, 동문회 결성 지원 등에는 매우 소홀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본부의 국제화 전담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매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괄적으로 대학을 홍보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특성화되고 비교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전공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학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학과들이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학과가 되도록 학과의 국제화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2) 학부 학생 대상에서 대학원생 및 교수,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대학 국제화는 학부과정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부과정 위주의 교육 중심 대학의 이미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연구 중심 대학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학부과정 유학생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대학원 과정 유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학부과정 학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이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학 연구소의 국제화 지원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고, post-doc 과 같은 연구 인력을 해외에서 충원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교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이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2014년도 5개 주요 대학 조사에서도 외국인 교수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가장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대상 집단	S대	K대	H대	C대	D대
외국인 교수	25	67	42	25	17
외국인 유학생(학부)	88	94	88	88	94
외국인 유학생(대학원)	71	76	88	71	65
초청 교환학생(학부)	76	76	82	76	82
파견 교환학생(학부)	86	100	100	86	86
교환학생(대학원)	80	53	73	73	73

3) 양적인 국제화에서 질적인 국제화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입학과 졸업에서 한국어 수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공별로 졸업시 토픽 급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이공계의 경우 졸업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업현장에서 토픽 4급의 수준도 학부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토픽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학수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한 어학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학과정을 선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의 요건으로 한국어 수준을 획일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학업능력과 학업의지에 따라 유학생을 유치하고 한국어실력은 어학과정을 통해 반드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 후 정식으로 학부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조건부 입학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면서도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국제교육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변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취업과의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보다 먼저 국제화를 실행하고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인턴십 기회 확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산학연계의 활성화라고 할

특집 | 미래 고등교육의 동향과 한국 대학의 모습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시킨 후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학생들의 모국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양질의 유

학생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 본지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피츠버그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대학국제교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국제처장, QS-APPLE 해외학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산의 행정개혁: 현대적 해석과 평가』(공저), 『한국의 지방분권』(공저)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지방행정, 정책분석 및 평가, 대학 국제화 등이다.